

뭉치면 많이 내고 흩어지면 적게 내는 세금의 역생존원리 (다단계 초과누진세율)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	뭉침(통합, 합산, 단일개념)	흩어짐(구분, 분산, 복수개념)
사업자유형	단독 개인사업자(사업주 개인 단일과세)	동업 공동사업자 또는 법인(지분비율대로 구분배당)
세율구조	다단계초과누진세율에서 단일주체로 최고세율까지 올라감	구분주체별 분산소득이므로 누진세율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세율이 적용됨
급여와 배당	개인사업자는 이익이 모두 당년도 과세	법인사업자는 대표급여차감 후 이익을 다음년도에 배당
부동산 취득양도	단독명의로 단독소득으로 높은세율 적용 (기본공제 250만원 한번 적용)	부부공동명의로 반으로 배분된 소득에 낮은세율 적용 (기본공제 250만원×2배적용)
부동산 임대소득	단독명의로 단일소득에 높은세율 적용	공동명의자별로 소득구분 후 낮은세율 적용
금융소득구분	단독관리시 종합과세기준금액(합산제외) 한번 적용	금융자산 분산관리시 기준금액 2번 적용가능(세금부담 경감)
상속·증여세	사망상속인 경우 사망시 전체재산 단일신고과세로 높은세율 적용(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	생전 증여시 10년 단위 합산금액에 대해 수증자별, 기간별 신고로 낮은세율 적용
부동산증여	일반증여시 전액에 증여세 과세로 높은세율까지 올라감	전세금엔 부담부증여시, 전세금은 양도세로 차액은 증여세로 구분되어 낮은세율 적용가능